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8

▶ 29회 예고
아쇼까 진압군은 웃자인 반란군 부대장의 협조로 무사히 입성하여 반란군을 소탕한다. 반란군수괴는 시프라강 강변에서 교수형을 당한다. 이로써 반란군은 괘멸한다. 아쇼까는 다음날 웃자인 성민들의 시프라강 축제에 참여한다.



아쇼까 군사, 적군 부대장을 생포하다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아쇼까 진압군은 즉시 꼬삼비를 떠나 서남쪽으로 행군했다. 목적지는 반란군 수중에 있는 아반띠국 수도 웃자인이었다. 진압군은 기마부대, 보병부대, 코끼리부대 순으로 대오를 유지하며 베스강까지 나아갔다. 아직 전투대형은 아니었다. 정찰조 조장은 수시로 선봉대장에게 적정을 보고해 왔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을 불러 묻곤 했다.

"대장, 행군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오?"

"정찰 조장 보고입니다. 베스강과 베트와강이 만나는 도시에 축제가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무더운데 무슨 축제란 말이오?"

"가네샤신을 기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반란군이 위장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시오."

아쇼까는 방심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찰조 조장의 두 번째 보고도 축제하는 베디샤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보고해 왔다. 진압군은 경계심을 풀고 베디샤 쪽으로 향해서 갔다. 과연 도시는 축제 중이었다. 밀짚과 진흙으로 만든 커다란 가네샤신을 어깨에 멘 네댓 명의 브라흐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을 선도하고 있었다. 가네샤신의 얼굴은 코끼리이고 손은 세 개나 되었다. 사람들은 가네샤 신상(神像) 뒤를 따르며 미친 듯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렀다. 아쇼까 진압군은 거리를 우회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힘으로 해산시킨 뒤 통과하는 수밖에 없었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부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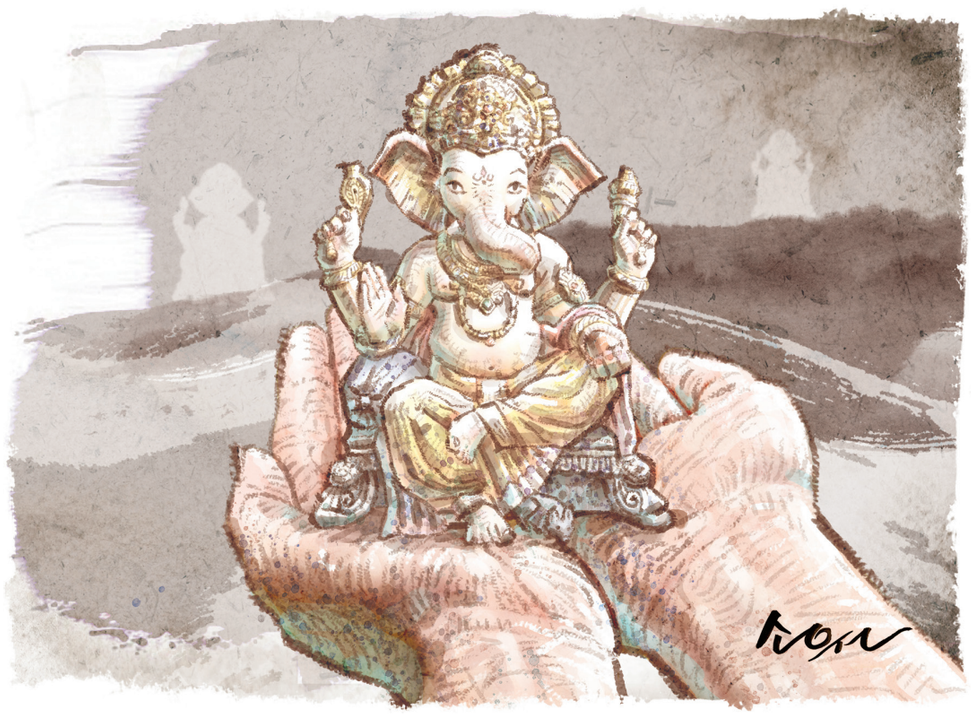
"브라흐마교의 축제이니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시오. 신에게 선택받은 브라흐민은 어느 때든 축제를 즐길 권리가 있소."

아쇼까 진압군은 길 양편의 숲으로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 숲속의 풀들은 이미 새벽이슬이 말라 축축하지 않았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깊숙이 들어와 비쳤다. 아쇼까는 제관 라다굽따에게 가네샤신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가네샤는 파괴의 신 시바와 히말라야의 딸 빠르바띠 사이에 생긴 아들이었다. 시바를 섬기는 가나(Gana)들 중에서 '우두머리 가나' 즉 군중을 지배하라는 뜻으로 가네샤란 이름이 붙었다. 제관 라다굽따는 아쇼까에게 가네샤가 태어난 인연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준 적도 있었다.

'빠르바띠가 목욕하던 중에 자기 다리에서 벗긴 때를 약초에 섞어서 사람 형상을 만들었다. 빠르바띠는 사람형상에 생명을 불어넣은 뒤 자신이 목욕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감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남편 시바가 오랜 만에 귀가해 보니 낯선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시바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가네샤가 막았다. 그러자 시바가 화를 내며 가네샤의 목을 잘라버렸다. 잠시 후, 시바는 빠르바띠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가네샤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았다. 시바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숲속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만나는 생명의 머리를 잘라 가져오게 했다. 부하들이 가져온 것은 코끼리 머리였다. 시바는 즉시 코끼리 머리를 가네샤의 어깨에 붙여 다시 생명을 찾게 해주었다.'

그래서 가네샤는 인간의 몸에 코끼리 머리를 가진 독특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사람들은 가네샤의 큰 코끼리 머리에는 영적인 지혜가 가득하고, 길고 굵은 코는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며, 불뚝 튀어나온 큰 배는 마음의 만족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또 가네샤 손에 든 밧줄은 쾌락에 집착하여 속박당하는 것을, 도끼는 그 속박을 끊는다는 것을, 달콤한 것은 자유를, 정면으로 편 손은 축복을 표시한다고 믿었다. 가네샤의 몸은 신들 중에서 무거운 편인데 흥미로운 것은 가네샤가 쥐를 타고 다닌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다른 신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가네샤 특유의 재주였다.



선봉대장과 진압군 일부 군사는 거리를 메운 사람들에게 욕을 했지만 아쇼까는 참고 견디었다. 베디샤 사람들은 아쇼까 진압군에게 우호적이었다. 술을 권했고, 진흙으로 빚은 작은 가네샤 신상을 선물했으며, 사탕수수의 단물과 짜파티를 건네주었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을 불러 지시했다.

"작전 중이니 우리 군사가 술을 마셔서는 안 되오."

"술의 유혹이 강할 것이지만 엄금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사는 슬그머니 빈 수통에 술을 담았다. 아쇼까는 술 냄새를 맡았지만 모른 체했다. 이윽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행진해 가자, 아쇼까는 신속하게 진압군을 이동시켰다. 도시가 가물가물 보이지 않을 때였다. 마침 옆에는 베트와강이 거울처럼 햇빛을 반사하며 흐르고 있었다. 군사들은 베디샤 사람들에게 받은 작은 가네샤 신상을 베트와강에 띄웠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모이는 바다로 가네샤신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아쇼까는 강물에 땀을 씻고 이동할 계획을 세웠다. 선봉대장을 불렀다.

"군사를 강변에 집합시키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점호를 하겠소."

진압군 군사들이 강변에 개인장비를 지낸 채 줄을 맞추어 섰다. 정찰조는 제외했다. 그제야 아쇼까가 선봉대장에게 말했다.

"군사들의 수통을 검사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쇼까는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를 점호했고, 선봉대장은 보병부대와 군수부대를 점호했다. 아쇼까의 예상대로 수통에 술을 담은 군사가 발각됐다. 아쇼까는 엄하게 소리쳤다.

"명을 어긴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군율을 어기지 않은 군사는 즉시 강물에 뛰어들어도 좋다!"

강변에 남은 군사는 열댓 명이나 되었다. 벌은 선봉대장에게 일임했다. 선봉대장은 명을 어긴 군사들에게 수통에 든 술을 모래밭에 쏟으라고 명했다. 술은 모래밭에 흔적도 없이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 선봉대장은 명을 어긴 군사들에게 수통을 입에 물게 하고서는 뜨거운 모래밭에 무릎을 꿇게 했다. 뜨거운 모래알에 군사들의 무릎이 벌겋게 익었다. 선봉대장이 소리쳤다.

"너희들은 부왕님의 명을 어겼다. 그러니 벌을 받는 것이다!"

"대장님, 한 번만 용서해주십시오."

"또 다시 명을 어길 것인가?"

그때 아쇼까가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대왕님의 명을 받든 마우리아국의 명예로운 군사다. 한시도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전이 끝나면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단 누구도 명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알겠는가!"

"예, 부왕님."

"좋다. 오늘은 여기서 용서해주겠다. 이제 저 군사들처럼 강물에 뛰어들어도 좋다."

벌을 받던 군사들이 일제히 환호를 질렀다.

"부왕님, 만세!"

아쇼까도 옷을 입은 채 절벽 위로 올라가 강물에 입수했다. 군사들이 아쇼까의 용감한 모습을 보고는 탄성을 질렀다. 강물 속에 들어간 아쇼까는 몇십 걸음의 강물 밖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숨이 찼던지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며 머리를 흔들었다. 어린 왕자시절부터 닦은 수영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낮의 더위를 식힌 군사들은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휴식을 취하면 이동속도는 그만큼 배가 되었다. 멀리서 정찰조 조장이 말을 타고 아쇼까에게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

"4요자나 밖의 거리에 웃자인 경계 군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들었는가?"

"웃자인에서 꼬삼비를 오가는 장사꾼들 이야기입니다."

"반란군이 경계를 서고 있군."

아쇼까는 반란군 군사로 의심했다. 선봉대장이 물었다.

"행군대오를 지금부터는 전투대형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아니오. 4요자나면 나흘 후쯤에나 도착하는 거리이니 그럴 필요는 없소. 다만 오늘부터 정찰을 강화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찰조 군사를 늘리고 반드시 반란군 경계병을 생포해 오시오."

"부왕이시여,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선봉대장은 기존의 정찰조에다 군사 10명을 더 늘려 별개의 정찰조를 만들었다. 밤낮으로 교대하면서 수색하듯 정찰하라는 강화조치였다. 정찰조를 강화시킨 효과는 이틀 만에 나타났다. 웃자인 부근까지 침투했던 정찰조가 반란군 간부 한 명을 생포해 왔다. 붙잡혀온 반란군 간부는 아쇼까를 보자마자 부들부들 떨었다. 아쇼까가 회유하듯 말했다.

"협조하면 살려주겠다. 너는 누구냐?"

"웃자인 왕의 군사입니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는 반란군 군사가 아닌가?"

"저는 마을을 수비하는 관군 군사입니다."

선봉대장이 소리쳤다.

"부왕님께서 네가 협조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셨다.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도 웃자인 군사는 실토하지 않았다. 할 수 없다는 듯 선봉대장이 부하에게 눈짓을 했다. 고문을 시작하겠다는 눈짓이었다. 선봉대장 부하가 웃자인 군사에게 발길질한 뒤 그의 손발을 밧줄로 묶었다. 선봉대장이 칼끝을 그의 얼굴에 대며 말했다.

"이래도 반란군이 아니라고 말하겠느냐!"

"살려만 주십시오. 다 말하겠습니다."

선봉대장이 또 다시 눈짓을 하자, 그가 땅바닥에서 이리 저리 짐승처럼 뒹굴며 말했다.

"손발만 풀어주십시오. 무엇이든 말하겠습니다."

밧줄을 풀어주자 그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웃자인은 왕을 죽인 반란군 대장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관군이었는데 성 밖으로 쫓겨나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웃자인 군사가 푸념하듯 말했다. 아쇼까는 그의 말을 믿었다. 이번에는 아쇼까가 말했다.

"왕을 죽인 반란군 대장은 누구냐?"

"원래는 왕궁을 지키는 경비부대 대장이었습니다. 그 자가 왕의 자리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째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냐?"

"성민들의 불만을 이용한 것입니다. 성민 중에서도 관리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왕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매관매직을 거침없이 했고, 장사꾼들은 진귀한 보석을 상납해야만 웃자인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왕이 탐욕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리와 장사꾼들의 불만은 없어진 것인가?"

"아닙니다. 왕이 된 경비대장은 난폭한 폭군으로 변해서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성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고 반항하면 죽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신이 쌓여 공동묘지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너는 누구냐?"

"경비부대 대장 막하의 부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은 왕의 자리를 빼앗더니 저를 성 밖으로 내쫓고는 모든 권한을 혼자서 독차지해버렸습니다."

아쇼까는 몹시 만족했다. 가네샤신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생포한 부대장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첩보를 얻은 것 같아서였다. 하나의 첩보는 웃자인 성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팽배해 있으므로 공격해도 저항이 미미하리라는 것이고, 또 다른 첩보는 성에서 밀려난 부대장을 앞세우면 성 공격이 용이하리라는 점이었다. 〈계속〉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